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고용 서프라이즈에 미국증시 쇼크

- 미국 증시 혼조: 다우+0.17%, 나스닥 -0.97%
-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 증가 소식에 WTI 90달러 하회
- 반도체주 재차 하락..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93%

### Summary

#### 미국증시 혼조: 다우 +0.17%, 나스닥 -0.97%

6월 9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등락 끝에 혼조 마감.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초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시장은 반도체 등 AI 관련 주요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장 중 진행되며 낙폭 확대하는 움직임.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자금 마련을 염두에 둔 주도주군에 대한 매도가 출회됐으며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둔 것도 시장 경계심리를 자극함. 다만 기술주와 에너지주 섹터를 제외하면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 필수소비재 등의 업종군은 상승세로 다우지수는 소폭 반등에 성공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0.17% 상승한 50,872.11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0.26% 하락한 7,386.65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97% 하락한 25,678.822에 마감했으며 나스닥 100은 1.12% 하락 마감. 국채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0.41% 반등 마감.

(다우 +0.17%, 나스닥 -0.97%, S&P500 -0.26%, 러셀2000 +0.41%)

#### “호르무즈 통항량 증가”

전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잠정적 교전 중단에 합의한 가운데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져 중동발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로 국제유가가 장 중 낙폭을 확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매우 의미있게 증가하고 있다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함. JD 밴스 부통령도 이란과의 평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며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힘.

#### 불씨는 여전..마감 후 미국, 이란에 ‘자위적 공습’

다만 관련 사태의 추이는 여전히 장담하기 힘든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 이날 오후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미 육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며 미군은 반드시 이번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 이후 이란은 미국이 이번 헬기 추락을 이유로 공격에 나선다면 이란 역시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실제 마감 이후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미 동부 시각 오후 5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자위적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작전은 전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데 대한 대응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이란의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미군의 공격 범위와 이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향후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 원유 수입 급감

한편 이날 유가 하락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발언에 따른 공급 병목 완화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음.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의 지난달 원유 수입량이 8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수요 감소 전망으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침.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5월 수출입 지표 발표를 통해 지난달 원유 수입량이 3,308만 1천 톤에 그쳤다고 밝힘. 이는 1년 전에 비해 29%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최저. 중국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급감하자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대신 전략 비축 유와 기존 재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해서 국영 정유업체들의 경우 가동률을 낮추고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을 1순위로 놓고 움직이고 있음. 중동 지역 공급 불안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는 향후 수개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 AI 반도체주 약세 요인

반도체주를 비롯한 AI 관련 기술주 동반 하락이 이날 시장 약화 요인. 이들 종목군의 하락 요인은 몇 가지로 추정되는데 i)관련 주요 ETF에 대한 숏 포지션 거래 증가, ii)이번주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자금 확보 목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주도주군에 대한 차익 실현, iii)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가 해당 종목군의 거친 매도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 iv)미국 데이터센터 개발 기업 한 곳의 프로젝트 중단 소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특히 데이터센터 개발 기업의 프로젝트 작업 중단 소식은 AI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로 여타 이슈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침.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등을 고객으로 두고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미국 기업 크루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와이오밍주 샤이엔에서의 개발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힘. 크루소는 샤이엔에서 익명의 임차인을 위해 1.8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개발 중이었으며 이 익명의 임차인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날 웰스파고는 시가 주도해왔던 시장 랠리가 토큰 비용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열기를 꺾을 위험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기도.

## 특징종목

### AI 반도체주 반등 하루만에 반락

전거래일 일제히 반등했던 반도체주가 하루만에 다시 약세 전환함.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현금 확보를 위한 기술주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 반도체 ETF인 SMH 등에 대한 풋옵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관련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힘. 엔비디아(-0.22%), 브로드컴(-1.1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41%), AMD(-3.02%), 인텔(-2.08%), 쉐일(-5.67%), 시게이트(-3.51%), 웨스턴 디지털(-7.66%),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7.66%).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93% 하락했으며 VANECK SEMICONDUCTOR ETF(SMH)(-1.20%), ROUNDHILL MEMORY ETF(DRAM)(-1.09%),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1.63%) 등 주요 반도체 ETF도 하락.

이외 AI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주 전반이 동반 하락. 코히어런트(-11.44%), 루멘텀 홀딩스(-8.22%), 코닝(-7.25%) 등. AI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코어위브(-3.83%)는 지난해 3월 IPO 이후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가운데 회사 임원들이 같은 기간 보유 지분 23억 달러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램 리서치(+0.8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43%), KAC(+1.49%) 등 반도체 장비 종목은 강세.

### 빅테크 약세

구글 알파벳(+0.26%)을 제외한 빅테크 전반이 약세. 구글은 이날 70여가지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할 수 있는 번역 모델 '제미나이 3.5 라이브 트랜슬레이트'를 구글 앱에 전면 도입한다고 밝힘.

이외 마이크로소프트(-2.02%)가 애저의 성장성에 대한 BNP 파리바의 긍정적 평가에도 하락했으며 브로드컴(-1.12%), 메타 플랫폼스(-0.14%), 테슬라(-3.00%) 등도 동반 약세. 특히 애플(-3.65%) 낙폭이 컸는데 전일 연례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 WWDC에서 새 AI 소프트웨어 '시리 AI'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단기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약세. 애플에 따르면 시리 AI는 아이폰15프로와 아이폰 15프로맥스, 아이폰 16 모델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첨단 시리 기능 실행을 위해서는 12GB의 통합 메모리가 필요.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새 AI 시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베어드는 여전히 전체 출시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JP모건은 규제 문제로 중국과 유럽에서 AI 기능 출시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초기 버전은 영어로만 출시된다는 점이 확장성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라고 평가. UBS 역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실망스러울 수 있다며 새 기능이 애플 하드웨어의 주요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골드만삭스는 애플의 하드웨어 AI 통합이 강력한 제품 교체 주기를 견인할 수 있다며 요즘 한도와 구독을 통해 AI 수익을 창출할 기회도 있다고 낙관.

### 유가 하락: 에너지주 약세-항공주 강세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을 이탈하기도 하는 등 장 중 낙폭을 확대하자 에너지주는 일제히 약세. 엑슨 모빌(-1.87%), 셰브론(-1.321%), 코노코필립스(-1.77%), EOG 리소시

스(-2.01%), 옥시덴털 페트롤리엄(-1.62%) 등. 다만 카니발(+2.67%), 노르웨이저언 크루즈 라인 홀딩스(+2.59%), 델타 에어라인스(+3.78%),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5.24%) 등의 크루즈, 항공주 등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로 상승.

**이외 특징주**

반도체주 약세는 금융,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주도주로의 수급 쏠림 구간 소외됐던 업종군으로의 순환매를 재차 야기함. 이외 개별 이슈로 등락한 종목으로는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사흘 앞둔 가운데 강하게 상승한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11.34%)가 특징적. 드래프트킹스는 예측서비스 5월 매출이 전달 대비 24%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암 치료제 개발사 누발런트(+39.28%)는 영국 제약사 GSK가 106억 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급등.

과일잼과 땅콩버터 제조사J.M. 스머커(+10.44%)는 이날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해 강세.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아(-0.31%)와 바이두(+1.69%), 전기차 업체 비야디 등을 중국군 지원 의혹 기업 명단에 추가했지만 주가는 별다른 영향받지 않음.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안 플랫폼 업체 세일포인트(-11.44%)는 급락.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 상회했지만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5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3.2% 증가한 417만건을 기록하면서 주택 건설 관련 기업 주가는 강세. ISHARES US HOME CONTRUCTION ETF(ITB)(+4.02%), 빌더스 퍼스트소스(+6.04%), 플로어 앤드 데코 홀딩스(+8.30%), 톨 브라더스(+5.09%), DR호턴(+4.71%).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하락: WTI 90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공급 증대와 수요 감소 이슈를 모두 반영하며 하락. 전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 합의 소식에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배경에 깔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의 발언은 공급 병목 해소에 대한 기대를 키움. 여기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지난달 해외 원유 구매량이 하루 평균 약 780만 배럴로 8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수요 위축 전망으로 이어져 유가에 하방 압력을 더함. 다만 장 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미군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유가는 낙폭을 축소.

장 중 5% 가까이 하락해 배럴당 89.57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던 브렌트유 8월 인도분은 2.97% 하락한 배럴당 91.45달러에 마감했고, 장 중 5% 이상 하락해 배럴당 85달러때까지 밀리기도 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은 3.4% 하락한 배럴당 88.2달러에 거래를 마침.

국제 금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둔 경계감에 사흘 연속 하락.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 이상 하락한 트로이 온스 당 4,290달러대에 마감. 장 중 4,250달러선까지 하락해 지난 3월 23일 이후 최저를 기록하기도.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 역시 5% 가까이 하락해 온스당 65달러선을 기록.

### 미 국채금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하락(국채 가격 상승). 국제유가가 반등 하루만에 급락 세로 돌아서 국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유럽 거래에서부터 내림세였던 미 국채 금리는 뉴욕 장 진입 이후 유가 낙폭 확대와 함께 내림폭을 키웠음. 오후 장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가가 낙폭을 줄임과 함께 국채 금리 역시 반등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섬.

2년물 금리는 16개월래 최고 수준에서 하락해 3.4bp 하락한 4.124%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4bp 하락한 4.527%, 30년물 금리는 1.4bp 하락한 5.010%를 기록.

한편 이날 미 재무부는 3년물 국채 입찰을 실시했으며 무난한 수요 속에 시장 대비 소폭 높은 수준에서 수익률이 결정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32% 수준으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43%대로 높아졌으며 두 번 인상할 가능성도 23%대를 각각 기록.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 미만 수준.

### 달러 약보합

미국 달러화 가치는 소폭 하락. 유가 급락과 함께 낙폭을 키우던 달러는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해 '반드시,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유가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함께 낙폭을 줄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968로 전일 대비 0.056%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0.09% 상승했고 파운드-달러 환율은 0.28% 상승해 유로와 파운드는 달러 대비 강세. 한편 달러-엔 환율은 달러의 약세에도 엔화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며 160엔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 이날 달러-엔 환율은 전일 대비 0.124% 상승한 160.414엔을 기록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최고를 기록.

한편 전일 서울환시 주간 거래 종가를 1,512.10원에 형성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20.60원 급등한 1,532.7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10.95원 급등한 1,521.70원에 마감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